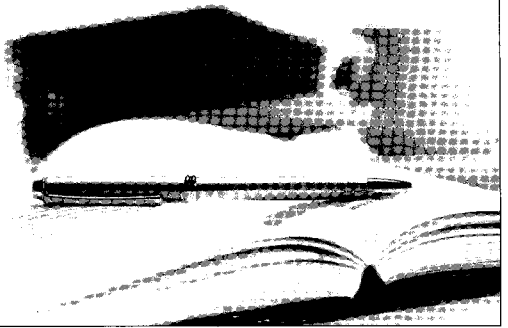


## 계열업체와 상생협약, 농가 소득 증가 기대



닭은 예로부터 사람과 늘 함께하는 친근한 가축이었다. 60년대 이전에는 집에서 10마리 내외의 닭을 어리장을 이용, 개별적으로 사육했다. 이 시절에는 집에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1~2마리를 잡아 몸보신 음식으로 대접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백년손님인 사위에게 씨암탉을 잡아 대접하는 풍속이 있었다.

이후 도시의 다양성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20세기 후반기에는 현대식 대형사육이 태동되었다. 70~80년대 서구식 도계장이 신축되면서 병아리·사료·가공공장·유통 등 육계통합사업체가 구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때부터 우리 소비자는 집에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수퍼에서 닭을 구입해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다. 이는 개별 사육이 아닌 전문 농가에서 닭을 사육했기에 가능하다.

몇 년 전 언론 기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한 상생협력은 기업 세계 혜택, 홍보효과 등 유·무형의 혜택만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수 백 억에서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협력업체 지원방침을 내놓았지만 재원의 절반도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일부 기업은 당초 공언했던 액수에 못 미치는 빈약한 실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고민하지 않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산업 상생 협력은 기업과 농가가 서로 힘을 합쳐 회사와 농가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육계 산업은 십 수 년 전만 해도 시세 폭·등락 속에 야반도주가 횡행하는 투



김 대 식 팀장  
(주)하림 문화전략팀

기산업의 대명사였다. 수년 전까지도 많은 육계 농장이 경매로 넘어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계열화 생산체계가 정착된 현재는 계열업체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에 힘입어 육계 산업이 국내 농축산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농가와 회사는 더욱더 상생경영을 통해 승-승(win-win) 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아울러 사육농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생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H사는 2006년 1회 우수농가 인증수여식을 시작으로 매년 우수농가 인증행사 및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39호의 인증농가를 양성했다.

지난 9월에 양계업계 최초로 H사와 농가협의회는 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 상생협약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2015년 사육농가 연평균 조수의 1억 5천만 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H사 협력에는 ▶병아리, 사료 등 원자재 품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사양관리 매뉴얼, 새로운 사양관리 기술 및 방역관리 프로그램 주기적으로 개선 보안 농가 제공 ▶축사 시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설자금을 적극 용자 지원한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에 적극 협력한다 등 4개항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사육농가는 4개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사양관리 준수 등 생산성 향상 운동에 적극 동참 ▶방역관리 프로그램 준수 등 안전한 계육생산에 적극 참여 ▶계사 단위 면적당 계육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계사 사육환경 개선 프로그램 적극 참여 ▶친환경 축산물, 대담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 및 HACCP인증 획득에 적극 노력한다.

또한 H사와 사육농가는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으며, 적극적인 제도개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육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올 하반기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상승의 활력이 점차 둔화되면서 국내경기도 상반기에 비해 경기 회복속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더블 딥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육농가와 확고한 비전과 목표, 개선활동 등 어떠한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생 경영구조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생 협력의 가치는 위기에 처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 등을 서로 협력하여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상생이 법이나 제도가 아닌 계열업체와 농가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되고, 더욱 발전된 단계의 협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